문재인-안철수 주말 고향서 ‘PK 혈투’

文, 강원서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를 찾아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安, 수도권 표심 공략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0일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퇴계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安 21~22일·文 23일 방문…홍준표와 치열한 3파전

文 중도·보수 외연 확장 행보…安 장애인 복지 공약 발표

지난 17일 공식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 양강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PK)지역에서 혈투를 벌인다.

20일 양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문, 안 후보는 이번 주말 일정을 PK지역에 초점을 두고 마련 중이다. 문 후보는 오는 23일 방문 예정이고, 안 후보는 21~22일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역은 두 후보의 고향일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 인구가 800여만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원래 PK지역은 여권 우세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전체 40개의 의석 중 야권에서 11석을 가져갔으며 탄핵정국으로 야권 성향 대선후보가 현재 1, 2위를 다투는 등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부동층도 가장 많고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유권자 비율도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양강의 두 후보가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는 문 후보가 안 후보에 약간 앞서는 상황에서 홍 후보가 10%를 넘어서 3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한편, 20일 문재인 후보는 보수성향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과 충북을 찾아 표밭을 갈았다. 진보진영의 탄탄한 지지를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됐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를 찾아 최문순 강원지사와 ’강원발전을 위한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가 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남북관계를 푸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강원도 기념식에 참석,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후 춘천과 원주에서 유세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뒤 충북지역으로 이동해 오후 6시30분 열리는 청주 집중유세에 참석했다. 이곳에서는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오송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충북을 중핵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뒤 여의도 당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만나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미국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파견해 실무접촉을 하고,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를 방문, ‘모두를 위한 장애인 복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산업기술 유망기업 채용·창업 박람회’에도 참석, 청년 일자리정책을 점검했다. 이후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YS 차남 김현철, 文 지지 선언…김덕룡 등 상도동계 함께

文펀드 1시간만에 329억 완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민주화 전통의 맥을 잇고 영호남의 진정한 화합과 이 사회에 만연돼 있는 각종 갈등과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등 상도동계 인사들과 함께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대정신인 화합과 통합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바로 문 후보라고 생각해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합류가 상징적 만이라도 민주세력의 재결집을 통해 정통 민주화 세력의 확실한 정권교체라는 숙원에 동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 출시한 ‘국민주 문재인 펀드’에 모금이 폭주하면서 1시간 만에 300억여원을 모았다.

이 펀드는 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식 홈페이지(www.moonfund.co.kr)나 최근 문을 연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http : //www.moon1st.com)’ 등으로 신청을 받았다.

선대위 안규백 총무본부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정확히 61분만에 1만534명이 약정했고 그 중 4488명이 총 329억 863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입금하지 못한 6046명은 펀드 약정 후 가상계좌를 발급받았지만 모금 절차 진행 도중 모금이 마감돼 입금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관위 보조금 130억원에 이날 모금한 329억여원을 더해 460억원 가까이 모아 애초 계획한 선거자금 470~480억원을 거의 다 마련했다.

이 때문에 2차로 ‘문재인 펀드’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을지는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된 선거자금은 7월 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에게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 연 3.6%로 정했다. 이자는 당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높은 연이율 역시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민주 ‘安 네거티브 지침 문건’ 논란

국민의당 검찰 수사 촉구…민주 “공식 문서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네거티브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재인-안철수 양강 대선 판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20일 민주당 선대위에서 생산된 네거티브 지시 문건을 입수했다며 선관위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가 호남과 영남 유권자를 분리하고, ‘안철수 갑질·부패 프레임’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공식 메시지를 SNS에 집중적으로 확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17일 생산돼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배포한 문건에는 안 후보에 대한 불리한 뉴스가 지지율 하락을 견인했다고 평가하고 검증의혹을 바닥까지 설파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철수·부도덕 금수저’ 등 홍보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부대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 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 공장 사장임이 밝혀졌으며, 더불어희망포럼은 이런 비공식 메시지를 유포하는 비인가 사설공장임이 드러났다”며 “이런 작태는 박근혜 십알단의 부활이며 호남과 영남을 분열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과 문 후보는 네거티브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기획·집행한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며 “검찰과 선관위는 더불어희망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네거티브 지침을 담은 내부 문건에 대해 “공식문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가 (자신이) 쓴 것을 지인에게 보낸 것을 같은 당을 했던 사람이 봤을 수는 있다.”며 “(선대위) 전략본부장에게 확인하고 캠프 내부 주요 본부장에게도 체크해 봤는데 내용을 아는 분이 없었다. 캠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문재인 후보(64) 외곽 지지모임인 ‘더불어희망포럼’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포럼 상임의장인 장영달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물러난 바 있어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포럼 상임위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안 후보의 나쁜 영상·문구를 주위에 알려야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 등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등 여론전에 나서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조직의 선거 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8일 “문 후보 캠프와 무관한 조직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동선대위원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종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종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